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감사의 노래 (시편 138:1-8)

## A song of gratitude (Psalm 138:1-8)

시편 137편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자유롭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방나라 왕들도 주께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합니다. 예배정신에서 감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In the previous psalm (Psalm 137), the Israelites who were captured as captives were not able to praise the Lord freely among the Gentiles. However, in Psalm 138, the Israelites not only praised the Lord, but gave thanks to Him in their expectation that even Gentile kings would one day praise the Lord. Gratitude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spirit of worship.

### 1.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뜻이다

감사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물질, 심지어 감사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고, 감사의 이유 또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물질, 소유, 건강, 성공, 축복 등이 이유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에 찬송과 감사를 앞세웁니다. 감사의 표준이 물질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 1. The phrase, "giving thanks to God," means that we praise God

The act of giving thanks or having an attitude of thanks for material possessions, is not as important as the God who receives our thanks. The motive for thanksgiving comes from God, because thanksgiving focuses on God.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material possessions, health, success, and other such blessings can be reason enough to give thanks. However, the Israelites wrote their own songs of thanks ahead of time to God. The foundation for their thanks was not in their material possessions and success, but in God alone. When God is with us, we have all the reason we need to give thanks to God. No matter how much we may be under unfavorable conditions and suffering, we can believe and thank Him for giving us the very best thing, Himself. Those who go along with Almighty God can always praise the Lord.

### 2. 감사는 고백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시인의 찬양은 공개적 신앙고백입니다. 만민이 주시하는 앞에서 여호와께만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 없는 고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백은 숨겨진 죄를 자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고전 15:10).

### 2. 'Thanks' is meant as a confession

The psalmist's praise to the Lord was a public confession of faith. Before the close gaze of many people, he tried to give thanks to the Lord alone and praise Him with his whole heart. We cannot give proper thanks without confession. Here, confession means frankly uncovering all our sins before God rather than confessing hidden sins to ourselves. In this way, the apostle Paul said,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1 Corinthians 15:10).

The main spirit of thanks does not come on account of receiving something. Although we may not receive anything, we must thank God simply out of our confession as human beings before God. God is not pleased with what little material stuff we may offer Him. If we do not offer up our thanks from life itself, then the thanks that follows from our life purpose and sense of duty will not be real either. Therefore, our thanks should not center on what we offer to God, but on our confession of faith which is made new every day.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자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의 기도에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공개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이름과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드높여야 합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살피시는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Conclusion

We must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and faithfulness. Our response in prayer to God should not be because we are special or have supernatural power, but because the Lord is love and faithfulness.

We must praise the Lord in public. The Lord's name and words must be lifted up high over all other names. The Lord who looks upon the lowly and the modest will preserve our lives at any cost, and He who is faithful will save us.

We must give thanks for His love and faithfulness. By lifting up His name each day,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praise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8회 교구 찬양대회

## 5월14일(금) 오후7시 본당

우리교회 모든 교구 가족들과 호산나 학교, 예배다부, 디아스포라부원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2010년 교구찬양대회가 5월14일(금) 오후7시 본당에서 열린다.

교구찬양대회는 '한마음 한가족 축제'와 더불어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가 된다.

교구찬양대회에 참가하는 교구 및 부서에서는 자유곡 1곡을 선정하여 연습하고 찬양대회 당일 연습한 곡만 찬



양하면 되며 심사기준은 참여도 50점, 음악성 20점, 준비성 20점, 관중호응도 10점으로 하며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김영준 장로, 고성진 집사, 류충기 집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수고하게 된다.

또한 5월16일 찬양예배 시간에 사랑상을 수상한 교구는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모든 교구와 부서가 하나 되어 열심히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성찬식

## 3월24일(수) 오후 7시 - 육사 교회

우리교회가 주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성찬식이 3월 24일(수) 오후 7시 육사교회당에서 열린다. 이 날 박노철 목사가 설교하며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한다.

졸업과 함께 임관하여 국토 방위의 임무를 하게 될 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들과 함께 진중에서 생활할 군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세례 받는 이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이 날 세례식은 교회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한다.

# 2010년 선교사 선발

우리교회는 지난 3월12일 2010년 선교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면접위원: 이종윤, 박노철 목사, 김광신, 노문환, 김영준, 이영기, 서문석, 임상헌 장로)하여 6명의 선교사 후보를 선발하여 지난주(3월14일) 당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선발된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 1. 정상진(601115) -팔라우(군경선교)

부산장신대 서울장신대 졸업 장신대신대원 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M.A.  
Midwest University D.Min 수료  
1990년 목사안수(충남노회)  
서울동노회 봉안교회 담임  
팔라우 한인교회 담임

### 홍성임(590126) 선교사-팔라우(군경선교)

전주대 국어교육과 졸업  
백석대 사회복지대학원졸업(사회복지사)  
자녀: 2녀(정에스더, 정해린)

### 2. 이종길(710522) 선교사 -말레이시아

하나은행, 일본미쯔비시 은행근무  
서울장신대 졸업  
장신대신대원 졸업  
2008년 목사안수(대구동노회)

### 홍미영(740721) 선교사 -말레이시아-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  
자녀: 1남1녀(이하진 이하겸)

### 3. 양재성(681204) 선교사 -카자흐스탄-

승실대 독문학과 졸업  
장신대 신대원 졸업 M.Div.  
2004년 목사안수(인천노회)  
WEC 국제선교회 카자흐스탄선교사(04-10)

### 이현주(720725) 선교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졸업  
WEC 국제선교회 카자흐스탄선교사  
자녀: 1남1녀(양수빈, 양민석)

#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목사는 3월 15일(월) 출국하여 미국(애틀란타, 워싱턴DC 등지)에서 연합집회 인도, 강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집회 후에는 영국(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사의 말씀과 보고 할 예정이다. 귀국은 4월 20일(화)에 할 예정이다. 이종윤 목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바란다.

#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 23일 (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2010년도 각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 받은 이들이 모여 교육받고 기도하는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3월23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에는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선다. 모든 교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맡기신 귀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1/4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 <가브리엘 찬양대>

김남희2 김양희2 양은희 하옥봉 이정근2  
임종태 임흥수

### <할렐루야 찬양대> 이광락 이은호

### <임마누엘 찬양대>

김수진5 임규연 김광욱 김현중3 이상윤 김성주  
<베들레헴 찬양대>

이현수1 이상문 정수환 서경학 임종태 최명남  
권혁우 심근섭 박병욱

### <예루살렘 찬양대> 김현진8

### <호산나 찬양대> 임인선

### <시온 찬양대> 박소정4 홍정란1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김가현1 김명석 이신영1 이인영1 박지혜4 홍하연

### <유치부> 차장: 박우욱

### <장년5부> 차장: 최규초, 김경희7 박인규1

### <신혼가정부> 이명아 이소명

### <Rainbow A> 김지수12

### <사랑부> 기복도 김규호2 김선석 김준석2

### 박찬양 신용건 최서원 최신혜 허윤형

### <1-5다락방> 전인상/진교남

### <7-9 다락방> 구귀순/오영자

### <7-12 다락방> 김진달/박정규

### <15-8 다락방> 이주희/신혜진

### <16-5 다락방> 강석조/장동철

### <16-21 다락방> 이영숙/박순규

### <도서실>

김경희14 김은정5 문정원 한효숙 이재경

### <계수위원>김광태

편지왔어요

#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우리 노브고로드 장로교회의 첫 장례식을 지난 첫 세례식과 창립예배와 같이 전도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2월 14일 첫 세례식과 창립예배를 “그렇게 ‘곱게’ (성도들의 표현:아름답게,멋지게,거룩하게,은혜롭게)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꼭꼭 숨겨 두었던 우리 노브고로드 장로교회를 만방에 선포하시면서 드러나게 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만드시더니 이번에는 창립 공표된 교회의 공식 첫 장례식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 교회를 알리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신 분을 움직이실 때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이곳 노브고로드에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서는 지금 확실히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살 때부터 알아왔던 올라자매를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데려가시면서 불과 10일전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창립을 선포하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 그 장례식을 통하여 귀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셨으니 이 일이 이 시점에 일어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 올라자매는 장발레리협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우리교회 장례나전도사의 딸로서 그에게는 여조카에 해당합니다. 이번 올라자매의 장례식으로 그 분에게 선교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와 목사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그 뿐만 아니라 노브고로드주 지역 전체 한국동포들에게 우리 노브고로드 장로교회의 필요성과 더욱 든든히 서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험합니다. 이 장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이종윤 목사님과 러시아 기도팀과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영호 선교사 드림



## 무엇으로 값으리오

김승록 집사(5교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몸으로 이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죄많은 저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이들 중에 저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보다는 오히려 멀리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어 가는 저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왔어요

#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임종태 성도(12교구)



저는 서울교회에 등록하기 6년 전부터 예비역 기독교인인 약 70여명이 매주 화요일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애정 어린 지도 아래 조찬기도회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 고통 받는 일이 있을 때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주어진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고 마음에 평안이 와 말씀이 새롭게 받아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해결되리라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음악교실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교육기간 중 음악에 대한 이해와 교감은 저에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교회로 등록하게 되었고 새가족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OCU 조찬기도회, 수요일부예배, 주일1부예배, 찬양예배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부예배를 마치면 주일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올 때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현재 가브리엘찬양대와 베들레헴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돌아 생각해보니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등록한지 얼마 안되는 새가족이지만 위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예배의 경건함과 거룩함, 각종 열린 프로그램과 교육의 활성화, 공동체 안에서 각 분야의 봉사활동과 교우들 간의 친교, 각 찬양대의 최선의 찬양 등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나의하나님

#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김재경 성도 (대학부)



2010년 2월, 저는 신앙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제가 서울교회에 등록한 지 9년째 되는 해이고, 매주 2부예배 시간에 하나님 전에서 핸드벨 봉사는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한 시간에 비해 너무 늦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을 성경적 이론과 체험을 통해 알고 난 후, 그 분을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부단히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전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과의 어울림을 통해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한 치에 부끄럽도

없는 사람인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09년,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부족한 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비전이 각각 세워지고, 그 비전에 맞춰 조금씩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처음 교회에 등록했을 때와는 많이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을리 했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며,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평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함을 이 글을 통해 고백합니다.

##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바리톤 손수오 선생의 독창으로 드러진다. 단국대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부르클린 컨서바토리와 피바디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메릴랜드주립대 음대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귀국 후 오라토리오 독창과 오페라 출연등의 연주를 왕성히 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 음대,한빛음악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왜 슬퍼하느냐 (최택현)"외 두곡을 서유진 성도(시온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 (9교구)김순자 권사 (13교구)문금희 집사  
 <4독> : (6교구)유을상 집사  
 <2독> : (5교구)이운영 권사 (6교구)이춘실 권사 허인숙 권사(7교구)정연택 권사 (14교구)정미연 권사  
 <1독> : (8교구)김대호 장로 (9교구)이남성 집사 (11교구)김해수 집사 (13교구)김경숙 집사 (14교구)박정금 집사 (15교구)신화우 집사 우미란 집사 (16교구)장양일 집사, 백도환 집사

### 동정

- 특남: (3교구) 유태근 성도 이혜인 성도 가정 (유승순 장로 소년자 권사 아들 가정) 정철웅 집사 오선혜 집사 가정(미국)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장녀 가정) (9교구) 홍영근 성도 이혜인 주성도
- 이사 : (1교구)오윤걸 집사 김민아 집사 가정 대치1동 삼성@ 103-1903
- 약국개원: '판교약국' (2교구)이옥심 권사(류기정 집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1 스타식스코어 402호 T. 031-8017-8057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3.21) 에스더전도회(3.28)
- 금주의 식사: 신창호집사 송혜숙 권사 가정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최종 명단

이관규, 김형상 최금숙, 김상임 조금실, 최종희, 김현송, 도중섭, 정운재, 진원식 진준식, 김장섭 최준숙, 하인선 남태순, 노송성 이영옥, 정지예, 정수진, 김원중 이갑연, 권혁달, 김승만 백기선, 임홍수, 이신원, 이종우 이재정, 박종권 김희경, 유순자, 윤계진, 이갑진 박우주, 김인혜, 이광배, 이영자, 박종환, 김준옥, 임광호 김정미, 이미연, 손명근, 고이라 고요한, 황선옥, 최광성 김광민, 정동화 김복순, 김철호 안미경, 탁경준 전정숙, 하영수, 김수영, 안홍희 전화진, 원용범, 김영제 박금희, 양준경 이인숙, 김지영 김선혁, 김희석, 김재근 안분선, 박현미, 송행희, 최향봉, 김예원, 김 휘, 민혜정, 허경희, 김문빈, 권소희, 박진희4, 백 훈, 신용식, 우승희, 이민희, 김준복, 임상현, 김윤숙, 배현승 배현주, 이강진 이신혜, 홍순복, 송인권 윤숙지, 신순자, 이영기 이영숙, 이호민 이형진, 이준호3 이은희7, 장해라, 장해윤, 이민화, 박정자1, 류종기, 장명순, 이현수, 박화실 이은지, 박민수, 박주원, 제2스데반회 송인권, 제1권사회 윤갑숙, 루디아회 오정숙, 동아시아기도팀, 김필임, 주화인, 유을상 윤숙희, 김명심 성선규, 김중자 박진희, 이우리, 류한민 류한희, 이영미, 김성주 한주희, 임미경, 김세웅 김운, 오정수, 청년1부, 이창수, 강진환 양정실, 박정선, 이상호(2), 이세라, 이혜나, 주현석, 유환규, 유동규, 유기룡 우원향, 김예순, 김종우 박은정, 권오철 박영애, 권애리, 최홍열 오홍래, 신주현, 신도빈 신효민, 마리아 여전도회, 이종일, 곽숙, 이현주, 김대호 남순덕, 김성준, 노병호 홍지나, 신호용 김설아, 김복녀, 전광영, 한정운 한정민, 이민숙(4), 이명구 문옥일, 강재훈, 박선현 김점숙, 임태관, 김정근 김수정(12), 오민세 임경희, 김숙영, 김영준, 김영주, 오치열, 김영희, 정기자, 박경정 이인보, 나정선, 박노철, 김영빈 배

병이, 권현택, 이완선, 박을진, 황병석, 오준서, 전수자, 장애순, 김명옥, 윤석원 현승희, 제2권사회, 변만중, 박재숙, 에스더 여전도회, 최규호, 한나전도회, 윤운, 김선영 김성준, 박동원, 홍석현, 은기장 김경숙, 최형열, 송재현 선문예, 강수남 송경옥, 임충식 신선주, 원용규 박이선, 정김영, 백정숙, 김수진(5), 최미아, 이재경, 김봉환, 박종권 김희경, 이준우, 송인수, 박찬성 심명숙, 박종민, 박용성, 김경희, 홍성주 여현진, 송영재 합정희, 김종철, 심상희, 이동만, 김상태, 김재혁, 제1스데반회, 김명실, 정문곤 김명옥, 김사라, 문경덕, 이준서, 박준영, 박지현, 은기장 김경숙, 리브가전도회, 안치영, 이영희, 허우금, 조장미, 박상훈, 차도훈 남태영, 이상백, 김선자, 강홍래, 배재송 임분도, 최형열 김찬진, 이양철 김미향, 김정순, 윤혜정, 정보금, 윤지수, 주동재, 차영도, 다락방5-7, 목회자, 하태현, 한명주, 최형석 황영숙, 전봉길, 박명철 이소명, 오종원 김연화, 김은정, 백승갑 박길자, 원명희, 홍현기, 유관모, 사랑부 이계숙, 이기태 유봉현, 이훈희 이동희, 이희민 이경실, 이상은, 이복규 한명순, 김영표, 나미용 나상민, 김경복, 고석규 한치중, 남현주, 임훈규, 이영주, 새가족부 임상현, 박만기 홍은심, 임경락 김혜중, 이삭선교회, 고석태 장효정, 송인덕 이홍숙, 최원석 박길희, 이남복 김은희, 김성은, 이근대, 오유식, 이건희, 조재민 조재석, 최양진 강윤숙, 강낙훈, 강석조, 이우성, 김해영, 강인식, 공재영, 서상근 김예환, 공유진, 정광열 정동원, 윤석준, 이승연, 김승록 전미경, 심주하, 심설아, 심근성 정수은, 김필규, 김정제, 모세남선교회, 최희여전도회, 주차훈 윤계진, 전현주, 김재용 김재명, 홍혜란, 송지윤, 전인상, 이태준, 황란옥, 이삭선교회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복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 교회우리는 길

